



# 30DAYS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30일 기도**



**Open Doors**



## 하나님의 이름이 아프가니스탄 위에 임하길...

“이제 우리 곁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성도들이 전해온 말입니다. 작년 8월,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후로 아프간 비밀 성도들의 삶은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어려웠던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탈레반의 귀환 전에도 아프간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탈레반까지 돌아오면서, 아프간 비밀성도들은 그 어느때 보다도 위험해졌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슬림으로 자라다 어느 날 갑자기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밝은 빛의 형상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들어봤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누구도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슬람을 배반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이 거리에서 화난 군중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꿈을 쫓아, 꿈 속에 빛으로 나타난 그 분을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이름은 가명이 사용되었습니다.  
사진들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표지사진 출처 ©Unsplash

예수님의 음성과 광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움직인다. 결국 나는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서라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대가가 무엇을 의미하든지 말이다...

가족들이 알게 되면, 절대 나를 전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다. 날 미워할 것이고, 저주를 가져 온다며 나를 피할 것이며,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날 집에서 내쫓을 것이다. 난 우리 문화와 종교의 배신자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채찍질과 매질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날 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적에 기적이 더하여,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도해 주신다. 마침내 비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나게 된다. 그들은 매우 은밀하게 비밀리에 모임을 갖는다. 그 들로부터 내가 꿈에서 본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손에 못 자국이 있고 빛나는 광채 속에 계시던 그 분. 이곳에서 만난 분들을 신뢰하게 되고 오래지 않아 친구가 된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새롭게 친구가 된 그들에게 주님께서 날 부르셨고 주님께서 날 기억하고 계심을 속삭인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간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분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이다.

2021년 8월16일, 탈레반이 돌아왔다. 매주 그들이 외곽으로부터 점점 더 가까이 도시들을 점령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오늘은 미군이 철수하는 날이다. 이제 대통령궁에는 총을 든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들어섰다. 거리는 혼란의 도가니다. 이웃 사람들이 뺨뺨한 트럭에 비집고 올라탄다. 모두가 이 나라를 탈출하길 원한다. 카불 공항이 유일한 탈출구이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비행기에 올라타려 한다.

집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쉬지 않고 울린다. 문자 메시지가 설 새 없이 온다. 나를 걱정하는 친구들의 문자다.

“너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거야?”

수많은 문자메시지들 중 하나가 내 눈에 들어온다. 번호를 보니 모르는 번호다.

“네가 예수를 믿는 것을 알고 있다. 너의 이름도 알고 있다.”

등골이 오싹해진다. 하지만 곧이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차분해짐을 느낀다.

탈레반이 돌아왔고,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 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안다.

위 이야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밀성도들이 살아가는 위험한 현실을 재연한 것입니다. 탈레반 귀환 초기에, 현지 소식통은 “제가 물어본 모든 성도는 오직 한가지만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 그들이 진심으로 부탁하는 것은 기도 밖에 없어요. 그들을 위한 현실적 보호장치는 탈레반에 의해 모두 사라졌어요.” 라고 전해왔습니다.

오픈도어 설립자인 브라더 앤드류(Brother Andrew)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우리의 기도는 갈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국경도, 감옥의 담장도, 우리 앞에 닫힌 어떠한 문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와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매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모든 소망이 있고 능력과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106:8

# WEEK 1

## 엘로이 (EL ROI) -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는 매우 소수의 비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노출될 경우 죽음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택한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의지할 만한 공동체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탈레반이 집권하자, 탈레반이 기독교인들에게 저지를 일들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남성들이 불시에 집을 수색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두려움 속에 비밀 기독교인들은 급히 은신하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아프가니스탄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암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에 남기를 선택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남겨진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적힌 명단이 들고 있어요. 명단 속 우리들 중 몇 명은 살해됐고, 몇 명은 납치됐으며 몇 명은 실종됐어요. 마치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난 다음 날 아침처럼 느껴집니다.” 라며 아프간 현지 성도 사드 형제는 말했습니다.

아브람의 여종 하갈은 사래에게 학대를 당하고 사막으로 도망친 후, 홀로 외로움과 불안전, 소외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찾아와 약속 한가지를 전해줍니다. 하갈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이름을 하나 지어드립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엘로이(El Roi)’라고 부르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라고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엘로이(El Roi)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독교 신앙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창세기 16:13-14

# WEEK 1



사진 출처 ©unsplash

## DAY 1: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

사드(Saad) 형제는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하자, 모든 것이 다 두려웠어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탈레반이 장악한 그날 밤, 마치 누군가가 제 기억 속으로 들어와서 저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제 모든 기억들을 부숴버리려는 것 같았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아프가니스탄의 비밀성도들이 탈레반 정권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도록, 두려움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간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도록 기도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 WEEK 1

### DAY 2: 외로운 이들을 위한 기도

이어서 사드 형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실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매우 혼란스럽고 외롭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비밀 기독교인들이 느끼고 있는 외로움의 소리가 사드 형제를 통해 메아리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위기에 남겨진 아프가니스탄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하심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28



## WEEK 1



### DAY 3: 실종된 이들을 위한 기도

탈레반이 돌아오기 전, 걸프(Gulf)지역에서 온 크리스천 소녀 사이드 파리쉬테 (Said Farishteh)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납치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제 사촌 언니도 납치됐어요.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누군가 언니를 해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어떤 짓을 하든 겁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서는 저를 잊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들도 저를 잊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라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탈레반이 돌아온 후, 곳 곳에서 사람들의 실종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탈레반뿐만 아니라, 분노한 친척들이나 불만을 품은 이웃사람들에 의해서도 납치될 수 있습니다. 현지 기독교인들이 전하기를, 아는 기독교인들 중에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종된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실종된 성도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에 남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시편 34:18-19





## DAY 4: 탈출자들을 위한 기도

현지인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군용기 위로 올라가고, 공항할주로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이웃국가로 가는 국경지역에 가기 위해 밀수꾼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더 자유로운’ 미래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위험한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들 모두가 살아 남은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했거나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외국정부와 NGO단체의 동정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으로 위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탈출했는지는 밝힐 수 없습니다. 모든 아프간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 또한 두려웁습니다.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남길 원한다고 하더라도, 신앙 때문에 숨어서 비밀리에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 할 겁니다. 혹은 국경지역으로 달아나가거나, 탈출하길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경우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낯선 땅으로 망명하는 이들의 길을 열어 주시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식량과 이동수단 등의 필요가 공급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은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시편 18:35-36

## DAY 5: 남겨진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

샤리풀라(Sharifullah)는 전통 공예 수공업자입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랫동안 비밀기독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한 동안 샤리풀라(Sharifullah)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상징을 자신의 작품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이 오면서, 생업인 공예점이 임시 폐쇄되었습니다.

“3주 전쯤 탈레반이 들어오고 몇 주 만에 온 나라를 장악하면서 수도에 위치한 많은 공예점들이 진열 품에 사용되는 디자인에 대해 경고를 받았어요. 알다시피, 탈레반은 자신들의 사상이 모든 곳에 반영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색깔, 생명, 소망이 들어간 모든 간판들이 제거되었어요. 기쁨이 들어간 간판은 덧칠을 하고는 그 위에 희망과는 거리가 먼 탈레반 구호를 썼어요.”

예수를 믿는데 따르는 위험에 더해, 샤리풀라(Sharifullah)의 생업은 현재 무기한 중단 상태입니다. 이는 가족과 고용된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샤리풀라(Sharifullah)만이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남기로 한 많은 비밀기독교인들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아가며, 생계와 교육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아 있는 비밀기독교인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탈레반 정권 아래 알 수 없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8



## WEEK 1

### DAY 6: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한 기도

역사적으로, 탈레반은 여성을 학대하고 여성들의 학교 교육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권을 잡은 후, 그들은 국제사회에 이번에는 여성을 다르게 대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현지의 한 소식통은 "아프가니스탄에는 여성의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어떤 폭력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침묵시키는 위장이 있어요." 라고 오픈도어에 전해왔습니다. "이 위장은 부르카(이슬람 여성 의복)로 비유될 수 있는 덮개라고 할 수 있어요. 수백만 아프간 여성들이 말살되는 참혹한 현실을 숨기는 어떤 가리개 같은 거죠. 다음 세대를 낳을 이 아프간 여성들에게, 20년이 지난 후에도, 이 상황이 지속되거나 더 악화된다면, 이 여성들은 더 이상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과 교육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을 거예요."

아프간의 어린 소녀들과 여성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해주세요. 이들이 성장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특별히 샤리풀라 형제의 공예점에서 일하던 여성직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들 여성들은 아직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탈레반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5



## WEEK 1



### DAY 7: 가족과 떨어진 이들을 위한 기도

사마드(Samad)는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 중앙아시아의 한 국가에 있는 무슬림 형제입니다. 그는 홀로 탈출하면서 아내와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최전방 현지 파트너들이 사마드 형제를 만나게 되었고, 최선을 다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는, "사마드는 우리에게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 울었어요. 고국인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한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내와 아이들을 탈레반의 손으로부터 구해서 이곳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사마드가 가족과 다시 함께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탈레반 집권으로 인해, 어쩌면 영원한 이별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르는 모든 아프가니스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나의 영혼이 놀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시편 119:28



# WEEK 2

## 여호와 샬롬 (JEHOVAH SHALOM) - 평강의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전쟁 속에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지 10일도 지나지 않아, 아프가니스탄 내 IS 분파인 IS-코라산 (Khorasan)에 의해 카불 공항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 자살폭탄 테러로 150명 이상이 사망하고 많은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독립된 하나의 테러가 아니라, 연이어 발생한 수도 카불(Kabul), 쿤두르 (Kundur), 칸다하즈 (Kandahz), 잘랄라바드(Jalalabad)의 도로, 모스크, 병원 등이 파괴된 연쇄테러사건과 연결된 사건이었습니다.

오픈도어 현지 소식통은 "이런 공격들은 우리에게는 늘 있는 현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공격은 늘 있는데, 문제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공격이 발생할 때,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항상 무섭고 두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여호와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샬롬은 온전함, 잘 사는 것(웰빙), 고난과 전쟁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샬롬이 아프가니스탄을 온전히 덮어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WEEK 2



### DAY 8: 치유와 용서를 위한 기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2021년 한 해에만, 연 이은 폭탄테러들로 수백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소수의 경미한 부상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상자들은 치료에 몇 년이 걸립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라고 현지 소식통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테러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부상자의 육체적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또한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 테러공격자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피해자들의 마음의 분노와 비통함과 억울함을 없애주시고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여호와와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돌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예레미야 30:17



## DAY 9: 안식을 위한 기도

적대적인 환경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의 지속적인 폭력테러와 위협 외에도, 비밀기독교인들은 더 큰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아프가니스탄 비밀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이들 모두가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 놓을 수 있도록, 또한 불확실한 미래를 온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18:35-36

## DAY 10: 변화를 위한 기도

아프간 현지 기독교인 파티마(Fatimah)는 "탈레반 대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지 않아요. 그들의 눈을 보면 항상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생각과, 고민하고 꿈을 갖는 사람들을 어떻게 저지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극단주의 단체에 소속된 대원이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고 변화시키셨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자였던 바울이 예수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열성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주님께서 탈레반과 IS-코라산(Khorasan) 대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용서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해주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사야 57:15





## DAY 11: 허위정보 척결을 위한 기도

탈레반의 집권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현지 언론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방국가들과 공모했다는 꼬리표가 붙어서 탈레반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언론사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내 신뢰성 있는 뉴스 매체가 없어서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가짜뉴스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이러한 정보의 상당 수는 기독교인들에 관련된 것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지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진실된 내용만이 외부로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언론 검열과 허위 정보 척결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의 진실성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시편 15:1-3



사진 출처:IMB.org



사진 출처:IMB.org

## DAY 12: 극단주의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기도

아시아 전역의 이슬람단체들은 탈레반의 승리로 고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슬람 극단주의가,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몇몇 테러단체들 (제마이슬라미야: Jemaah Islamiyah, 아부 사야프: Abu Sayyaf)과 이전에 알카에다(Al-Qaeda)와 연계되었던 기타 단체들도 사기가 올라 행동을 취하거나 지역내의 테러리스트들을 선동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방글라데시 내 무슬림 강경파들 역시 탈레반 반열에 합류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정도로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테러단체들의 사기를 꺾고 계획들의 혼란을 야기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탈레반 집권의 영향으로 동남아와 그 주변 지역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악을 피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잠언 12:20





사진 출처 @IMB.org

## DAY 13: 폭력의 종식을 위한 기도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한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눈앞에 벌어지는 수많은 죽음들로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과 탈레반 사이의 종전이 아프가니스탄에 평화가 시작되는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이 정권을 차지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IS-코라산 (Khorasan)은 탈레반의 새로운 통치에 전면적인 공격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여러차례 폭탄테러를 일으켰습니다. IS-코라산 (Khorasan) 입장에서는 탈레반이 만족할 만한 '극단주의자'가 아닙니다. 물론 탈레반 역시 그 잔혹함과 샤리아법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집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탈레반은 신체 부위를 절단하는 처벌, 불신자에 대한 공개적인 채찍질, 즉결처형 집행 등으로 유명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일상이 당연한 일이 되어 버린 폭력들이 종식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주세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아프가니스탄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이다”

시편 72:14

## DAY 14: 쇠신된 긍휼한 마음을 위한 기도

아프가니스탄이 뉴스의 헤드라인에서 사라져 가면서, 전세계 교회에 속한 우리들 또한 그 땅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걸프지역의 테러리스트 공격에 대한 뉴스들이 끊임없이 보도됨에 따라, 우리 마음이 지치고 무감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아프가니스탄의 폭력을 종식시켜 주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의 마음 또한 돌아보고 인류의 고통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공감하는 것에 이제는 지쳐가요? 냉담해 지진 않았나요? 무감각해 지진 않았나요?

고린도전서 12:26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주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살롬으로 채워 주시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우리의 긍휼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롬은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듯,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자라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15





A photograph of a street scene in Afghanistan. In the foreground, a red and yellow motorcycle is parked. Behind it, another motorcycle is visible. Several people are standing or sitting near the motorcycles. In the background, there are buildings with closed metal shutters and a balcony with a red railing. The scene is somewhat blurry, suggesting movement or a candid shot.

## 하나님의 이름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미디어는 조국을 탈출하려고 발버둥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 대한 많은 보도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꼈을 절망감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자기 나라를 떠나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모든 환경이 기독교인들에게 더 적대적으로 변했을지라도, 생계가 어려워짐에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전통 공예 수공업자 샤리풀라 (Sharifullah) 형제와 같은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신실한 비밀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샤리풀라 (Sharifullah) 형제는 "우리는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 할때까지 세상에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계속 우리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 WEEK 3

## 여호와 이레 (JEHOVAH JIREH) - 공급하시는 하나님

수십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국제사회가 제공한 항공기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신매매업자들의 도움을 받아 트럭을 타고 사막을 가로질러 국경을 넘었습니다.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또는 서구 국가들로 도피하여 난민지위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옷가지 몇 벌만 가지고 나와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합니다. 두고 온 가족들을 영영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아직 집이라 부를 만한 거처가 없고, 식량도 없고, 손에 쥘 돈도 없이 생존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내에서는 은행과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수입원이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겨울은 모두에게 힘든 계절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심각한 기아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픈도어의 현지 소식통은 "모든 아프간 사람들의 필요는 똑같습니다. 안전, 식량, 깨끗한 물, 의약품 등입니다. 국가적으로 폭력이 만연하여 모든 공급망이 붕괴되었습니다. 병원들도 기능을 멈추었고요. 아직 깨끗한 수도물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수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래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식수원이 오염되면, 각종 질병이 발생할 거예요. 대규모 전투가 발생해서 학교와 병원들이 파괴되면, 수백만 명에 대한 의료지원이 필요하게 되고 의약품과 의료진에 대한 접근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해왔습니다.

이번 주는 여호와 이레 -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솥장이 뒤에 있는데 뽕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솥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13-14

## WEEK 3

### DAY 15: 식량공급을 위한 기도

UN은 2,28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이 기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전역에 가뭄이 닥쳤고 많은 국가들이 탈레반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먹을 식량이 부족한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탈레반 집권 후, 물가 또한 급격히 상승하여 코로나 봉쇄조치와 군사적 충돌로 인해 수입원마저 끊어진 일반 시민들은 어떤 것도 구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식료품마저 구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어라"

시편 107:9





## DAY 16: 안전한 국경 통과를 위한 기도

최전방 현지 파트너 중 한 명인, 나짐(Nazim)은 난민촌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최근 국경을 불법적으로 건너던 아프가니스탄 마약밀매업자들이 국경수비대원 한 명을 죽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프간 난민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크리스천 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난민들을 돌려보내고 있는데, 야시겠지만, 이는 난민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죽이니까요. 크리스천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난민 사역을 하는 또다른 현지 파트너는 목사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매일같이 강을 헤엄쳐와서 들판이나 갈대 숲에 숨는데, 국경 경비대원들이 수색해서 이들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난민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서 타국에 들어가게 되면 입국하는 나라 군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난민들은 캠프 내에 임시 거처를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난민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통과한 다음 난민캠프 거주가 허락됩니다.

"집과 조국을 떠난 이들은 아무데도 갈 곳이 없습니다. 출입국관리소 주변을 이리 저리 떠돌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온 수많은 현지 난민들은 국경 반대편에서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지금도 그렇게 피난의 여정 길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라며 현지 파트너는 전했습니다.

**난민들의 안전한 국경 통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주세요. 그들이 피난처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편 121:7-8



사진 출처 @IMB.org

## DAY 17: 공공의료 시스템을 위한 기도

아프가니스탄도 맹렬한 코로나 팬데믹의 예외는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영양실조와 홍역까지 겹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권교체와 함께 탈레반의 공공의료에 대한 무관심이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현장에 있는 한 의사는 언론을 통해 "도시에서 있는 병원에서도 기초적인 의료장비와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시 병원의 사정이 이러하데, 외곽지역의 의료실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라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백신을 공급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약 40,000명에게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공급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아프가니스탄 병원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병원들이 복구되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탈레반 정부가 공공의료에 충분한 관심을 가지게 되도록, 그래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픈 이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사편 107:20



## DAY 18: 국제적 협력을 위한 기도

구호 단체들과 각국 정부기관들은, 탈레반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으로부터의 구호와 지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식량과 자원의 부족으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현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입니다. 현재, 구호 단체들과 각국 정부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식량과 의료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탈레반의 인권침해와 여성교육금지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현지인들을 돕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정책 결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더 많은 아프간인들에게 생필품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또한 이들이 정의와 공의와 진리를 놓지 않도록 주님께 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시편 72:11-14

## DAY 19: 상담 치료를 위한 기도

아이샤(Aysha)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최전방 현지 파트너 사역자입니다. 아이샤(Aysha)는 "수많은 난민가족과 여성과 아이들이 제가 있는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요. 이들은 집을 잃었고, 지난 시간들 동안 겪은 끔찍했던 일들과 아프가니스탄 현지 상황들 때문에 자주 소리 내어 운답니다."라며 이들의 아픔을 전했습니다.

아이샤는 이어서 "저희들이 이들 여성들을 섬겨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혜와 능력, 그리고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및 새로운 환경 적응을 위한 지원 등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중앙아시아 난민촌의 현지 파트너들이 난민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이들과 함께 지역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난민 여성들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해, 난민사역을 함께 기도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2-3





## WEEK 3

### DAY 20: 영적공급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프가니스탄 성도들이 굳게 닫고 일어서야 하는 단단한 기초 기반입니다.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비밀성도들에게는 신앙을 실천하고 영적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아프간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주님께서 아프가니스탄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세요. 주님께서 목회자와 사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성경교사들을 공급해 주셔서 이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9-10



사진 출처 @IMB.org

## WEEK 3



사진 출처 @IMB.org

### DAY 21: 주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신실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픈 도어 최전방 파트너 나짐(Nazim)은, 어려움에 처한 현지인들을 도왔던 감격적인 일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정들을 지원했습니다. 기독교 가정은 물론 비 기독교 가정들에게 음식구려미들과 깨끗한 물을 전달했어요. 이 지역에는 3년째 깨끗한 물이 거의 없어요. 강들이 말라버리거나 심하게 오염됐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더러운 도랑물이나 말라가는 강에서 물을 길어서 마시고 있어요."

한 현지 성도는 "우리가 아직도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여러분 모두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저희들은 오래 전에 여기를 떠났을 거예요.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에게 다가가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

# WEEK 4

## 여호와 니시 (JEHOVAH NISSI) - 승리의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상황은 낙담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모세의 팔이 파곤해지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듭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 모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Jehovah Nissi)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 하나(Hana)자매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승리를 취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박해는 계속되었어요. 박해 정도는 올라갔지 내려간 적이 없어요. 결코 줄어들지 않았죠. 종교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그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

고 있습니다. 박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라 종교에 대해,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접근도 20년 동안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20년 동안의 갈망과 접근은 더 많은 세대들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세대들 중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세대들도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있지만 이들 역시 자유의 가치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자유 실현을 위한 싸움과 전투,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계 속의 가장 강건하고 포기하지 않는 기독교 공동체 일원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성도들은 전쟁용사와 같은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네번째 주,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을 주님께 올려 드리며, 모세와 여호수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전투력과 전략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있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신명기 20:4

WEEK 4

## DAY 22: 오픈도어 최전방 현지 파트너들을 위한 기도

오픈도어 최전방 현지 파트너들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며, 아픈 난민들을 만나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역시 자신들의 도시 안에서도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사역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크리스천으로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받아들이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 중에 극단주의 원리주의자들이 있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물론,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난민들을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들을 받아들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 하마드(Hamad)는 말합니다.

최전방에서 사역하는 오픈도어 최전방 파트너들을 세워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24시간 사역하고 있는 현지 파트너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주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의지하며 난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8



사진 출처 @IIVB.org



## DAY 23: 하나님의 열린 문을 위한 기도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의 도전입니다. 수송 과정에서 검문소들을 통과해야 하고, 또한 난민캠프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캠프에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방에서 도움을 전달하고 사역하는 것은 수많은 어려움들로 가득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픈도어의 최전방 파트너들에게 계속해서 문을 열어 주셔서 밑에서부터 관계들과 접촉점들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3:8



사진 출처 @unsplash



## DAY 24: 사역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샤리나(Sharinah)는 아이를 데리고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했습니다. 지금은 중앙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난민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폐렴에 걸렸습니다. 샤리나(Sharinah)는 가진 돈이 없고, 그 나라 정부로부터 한 달에 8달러를 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샤리나(Sharinah)는 구호식품 전달 사역 중인 오픈도어 최전방 파트너 알리(Ali)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리는 샤리나(Sharinah)의 아이가 늦지 않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샤리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샤리나(Sharinah)는 무슬림이지만, 알리(Ali)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알리(Ali)로부터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샤리나(Sharinah)의 아이가 계속해서 치료를 잘 받아서 폐렴에서 완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주세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샤리나(Sharinah)를 만나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샤리나(Sharinah)를 계속 만나면서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아 주고 있는 사역자 알리(Ali)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6



사진 출처 @IMB.org

## DAY 25: 복음에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사마드(Samad, 7일차 기도와 동일한 형제)는 공식적으로는 무슬림이지만,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해주었던 오픈도어 최전방 파트너들을 만난 후, 탈레반의 행동 방식들을 보고 이슬람교에 너무나 실망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마드(Samad)는 오픈도어 최전방 파트너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들은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바로 직전에 와 있습니다. 현재는,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할 때 헤어진 가족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마드(Samad)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마드(Samad)의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님게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마드(Samad)가 가족과 다시 만나 함께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26

## DAY 26: 세상의 빛과 소금인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

아프가니스탄 내에 있든지, 타국에 난민으로 있든지,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빛과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 현지 소식통은 "아시아 문화에서 가족 간의 유대는 매우 긴밀하게 짜여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탈출했는데, 그 가족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내도록 기도해주세요. 이들이 가족들에게 신앙을 나눌 경우, 어떤 결과가 따라오든지 이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슬림 가족들 사이에서는 명예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아무리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알 수 없어요."라고 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비밀성도들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7



사진 출처 @IMB.org



## DAY 27: 난민들을 환영하는 교회를 위한 기도

아프간인들의 디아스포라 사태로 인해, 전세계 교회들이 함께 나서서 이들 난민들을 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프간 성도들을 돌보기 원하는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서구권과 전세계 모든 교회 공동체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교회가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교회들이 진정으로 따뜻하게 난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난민들이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의 간증을 통해 난민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35-40



## DAY 28: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

삶 전체가 뿌리 체 뽑히는 전쟁의 트라우마는 어린이들에게 생활의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이 중단된 어린이들, 부모로부터 떨어지게 된 어린이들, 전쟁의 폭력 속에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을 위해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해주세요. "어린이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제 이 어린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어요, 학교교육도 받을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살아야 하잖아요!" 라고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는 외칩니다.

이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전쟁이 어린이들의 마음 속에 남긴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어린이들이 온전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혼란이 가라앉으면, 오픈도어 전방 파트너들은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글자교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글자교실이 어린이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9:14





## DAY 29: 하나님의 승리에 감사하는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오픈도어 파트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확히 몇 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트럭 가득히 과일과 고기와 쌀, 의류, 기저귀, 위생용품 등을 싣고 난민 가정들을 찾아가 도움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픈도어 최전방 현지 파트너들은 또한 도움이 필요한 지역들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은 향후 미래를 위해 잡화점이나, 삼륜오토바이, 지역택시 등과 같은 소규모 생계사업 지원을 통해 난민가정을 장기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향해 전세계 교회 성도들께서 보내주신 넘치는 후원과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사편 85:12

## DAY 30: 희망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폭력과, 건강의 위기, 모든 필요의 부족과 결핍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비밀성도들은 굳건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바로 그 날, 사드(Saad)형제와 아내 파티마(Fatimah)자매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이들 부부에게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우리 딸 아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하나의 싸인입니다.”라고 부부는 고백합니다.

이러한 희망을 전통 공예 수공업자 샤리풀라(Sharifullah)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업이 중단된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희망이 침묵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반드시 세상이 복음을 듣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복음과 함께 살아감으로 저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유로운 복음의 나눔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말이죠. 부디 계속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아프간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프간 비밀성도들과 아프간 난민들이 고통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들이 모든 소망과 믿음을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 닛시(Jehovah Nissi) 하나님께 두도록 기도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14





# WHAT NEXT?

**아프간 형제 자매들을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기도로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이 보내는 가장 큰 요청은 기도입니다. 이들 아프간 성도들은 전세계에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습니다. 비밀성도 파티마(Fatimah)자매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보좌 앞에서 만나서 함께 연합될 수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기독교 난민 그레이스는, 전세계 교회 가족의 기도와 후원 속에서 자기가 발견한 희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실낱 같은 희망이에요. 그 희망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어요."

우리 오픈도어는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박해받는 크리스천 가족들을 위해 기도로 계속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은, 오픈도어 홈페이지[[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를 방문하시거나 사무실[02-596-31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픈도어의 무료 월간소식지 또는 주간 박해소식과 기도제목을 받기 원하시면 홈페이지 또는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픈도어**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T** 02-596-3171 **F** 02-594-3171 **M** 010-7548-3171  
**E**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H**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